

# 새마을운동 장학금 영욕의 41년 마감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대표적인 유신 잔재로 지목돼 온 새마을장학금이 41년 만에 광주에서 퇴출될 예정이다.

지난 퇴치와 경제 부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왜곡된 자활운동의 결과물이라는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면서 보상책임이었던 장학금제도도 영욕의 세월을 마감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7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 차례 연기했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에서 41년 만에 폐지된다.

새마을장학금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 말기인 1975년 당시 내무부 준칙에 의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광주시가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1978년부터다. 직할시로 승격된 1986년 11월에 '광주직할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자체 제정했다.

시비 50%, 구비 50%로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은 광주시에 5개 자치구에서 2017년에 1억800만원, 2018년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시민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지급된 새마을장학금 수혜자 572명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2회 중복 수령자가 78명이고, 내리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은 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 특정 단체 회원의 자녀들에게만 지급되자 특혜 논란이 일었고,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급 명분이 불합리하다며 즉시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올해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광주시의원 5명이 조례 폐지를 공동 발의하자 새마을회 회원들이 강력 반발했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되고 실효성을 나타내는 것은 광주가 전국 최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1988년과 2001년에 각각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했으나 관할 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 가사가 유행하며

## 광주시의회 상임위 조례 폐지안 원안 가결 새마을장학금 폐지 광주가 전국 최초 사례 '유신잔재'로 지목받고 특혜 논란 끝 퇴출

유신정권 때 부흥했던 새마을운동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쇠퇴기를 걷다가 박근혜정부에서 세계화 사업이 추진돼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새마을운동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고 경제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유신 적폐로 지목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은 “새마을장학금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 지적이 많다”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5개 자치단체는 탄핵·촛불정국 이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새마을기를 청사에 게양하지 않고 있다.

서은홍 기자



100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1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한 시민이 독립운동가 수형기록표를 살펴보고 있다.

## 중흥건설, 순천삼산중 이설 늦춰 시민들 비난

중흥건설이 순천시, 전남도교육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약한 '삼산중학교의 신대 이설'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30일 도교육청, 순천시, 광양만권경제, 중흥건설간 4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협약서 내용은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현 삼산중학교 부지 중 일부(2만453㎡)부지와 건물을 중흥건설이 가져가고 그 부지 면적만큼 순천신대지구에 중학교를 설립해 도교육청에 기부(부지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협약대로라면 중흥건설이 140여 원(건축비 등)을 투입해 2020년 3월에 개교해야 한다.

하지만 중흥건설이 학교시설 건축 승인(2018년 12월 18일)을 받고 2개월이 넘도록 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내년 3월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착공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개발로 전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이후, 신대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신원지구 개발을 준비하면서 이곳에서 발생될 하수처리물 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부터다.

이러한 중흥건설의 요구와 삼산중학교 이설은 전혀 무관한 사업이지만, 중흥건설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순천시가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착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삼산중 이설 협약 당시 순천시와 신원지구 하수처리를 기존 처리장과 연계처리하기로 구두약속했다며,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 착공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설학교 공사착공과 무관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7년 당시

중흥건설이 요구(신원지구 하수처리 연계)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수관로 공사(BTL) 종료로 공사가 완료되면 하수유입량을 파악한 이후 검토 할 수는 있지만, 현재(2017년 당시)는 그 어떠한 답을 줄 수 없다고 중흥건설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신대지구에 이어 신원지구 개발로 사업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흥건설이 학생과 주민들을 볼모로 신대중학교 건립과 무관한 하수처리 문제를 앞세워 신설 중학교 착공을 노골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순천시와 광양경제청에 많은 협조를 얻으면서 신원지구를 개발해야할 중흥건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갑질’이 아닌 ‘갑’질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숙박업소에 불 지른 30대 영장

광주 동부경찰서는 19일 자신이 지내는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묵고 있던 객실 이불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실내 일부를 태운 혐의다.

불은 연기를 보고 급히 달려온 숙박업소 주인이 진화했으며, 당시 부속객 6명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취한 A씨는 범행 직후 숙박업소 입구에서 경찰을 기다렸으며,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교도소에 수감시켜달라. 집에 보내주면 다시 범행하겠다”고 말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곡성 실종 50대와 연관성 있는 남성 검거

곡성에서 실종된 50대의 차량에서 혈흔 등이 발견된 가운데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곡성경찰서는 실종된 A(59)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B(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곡성의 한 마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40분께 실종됐다는 신고가 부인으로부터 접수됐다.

곡성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실종 하루 전부터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인 A씨는 수색을 벌여 한 도로에서 A씨의 SUV 차량을 발견했다.

또 A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 등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행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CCTV와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경찰은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B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어 실종 4일째인 지난 18일 오후 10시50분께 광주 모처에서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검거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며 A씨의 행방 등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헬기와 경찰력 등을 동원해 A씨를 수색하는 한편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대구 사우나 화재 2명 사망·70여명 부상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 불이나 2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다쳤다.

19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1분께 중구 포정동 대보상가의 4층 사우나에서 불이 나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2명이 숨졌다.

숨진 2명(50대 1명, 60대 1명)은 사우나 남탕에서 화재 진화 후 소방관들에 의해 발견됐다. 또한 이 불로 사우나와 아파트 등에 있던 70여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이 중 3명은 화상으로 중상을 입었다.

현재 경북대병원과 파타미병원 등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단순 연기흡입이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50여명은 대피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52대와 소방관 등 145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 지명수배 50대 조폭 승용차 절도 구속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청주지역 조지폭력배 A(5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에 청주시 상당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그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하다 달마를 잡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